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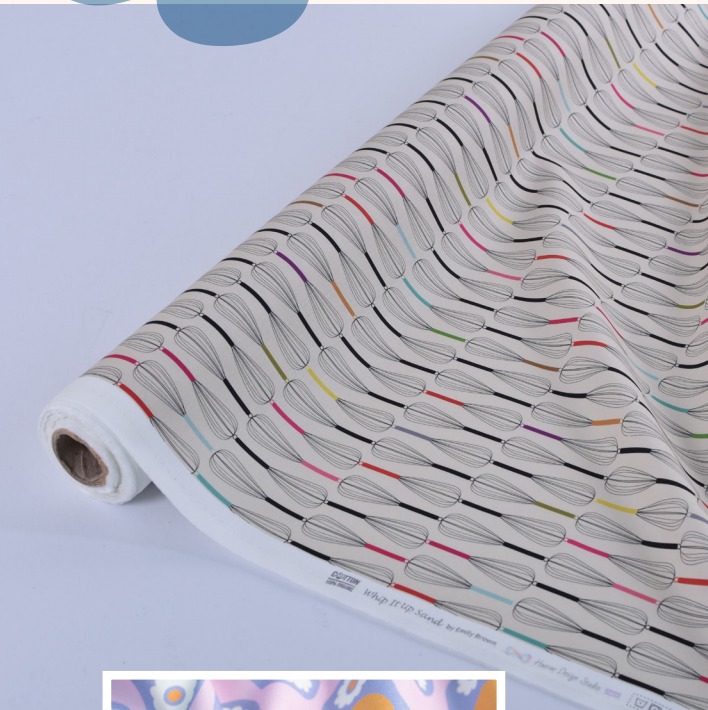


서현DTP

DTP로 텍스타일 PoD 시장의 프린터어 온디맨드 시스템으로 소비자 니즈 100% 만족

서현DTP(대표 김현서)는 DTP 기술을 활용해 Print On Demand, 일명 PoD 시장의 밝은 청사진을 꿈꾸며 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젊은 기업이다.

고객의 주문에 따라 1장이라도 생산 가능한 시스템인 PoD는 주로 의류 제품에 적용되어 발달해 오고 있다. 아마존의 머치 바이 아마존, H&M그룹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마플샴, 스냅스, 두드레스 등이 대표 PoD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PoD 시장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즉 DTP 기술이 발달했기에 가능했다. 서현DTP는 의류제품에 적용하는 DTP 기술을 텍스타일로 범주를 넓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솔루션

2017년 설립된 서현DTP는 기존의 원단 프린팅 방식인 실크스크린, 승화전사가 아닌 디지털 프린팅 기술에서 창업의 답을 찾고자 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패션이 강조되고, 의류 재고의 쓰레기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DTP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또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소몰 스트리트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고, 이들의 소재 수요가 점점 소량 다품종화되고 있어 이를 위한 해결책도 DTP 방식의 소재 공급이라고 판단했다.

서현DTP는 2017년 엡손 DTP 프린터기 2대로 시작해 지금은 7대까지 늘릴 정도로 꾸준히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원창머티리얼, 효성티앤씨 등 규모있는 소재기업부터 작은 소재기업까지 다양한 곳과 거래를 하고 있다. 월평균 4만~5만 야드 프린팅 생산을 하고 있다.

김현서 서현DTP 대표는 “우리의 강점은 평균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3,000야드 이상 프린팅을 원하는 빅 바이어부터 10야드 생산을 원하는 바 이어까지 모두가 우리의 고객입니다. 이것이 DTP의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남성복, 여성복, 스포츠, 아동복, 이너웨어 모든 복종이 우리의 바이어가 될 수 있고, 패션, 잡화, 라이프스타일 등 무한한 적용 아이템이 있다는 것 또한 사업의 밝은 비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버추얼 쇼룸 · PoD 소재 플랫폼 등 신기술 도입

서현DTP는 젊은 프린터어 기업인 만큼 사업 확장과 신기술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 기간 동안 패션 브랜드의 이커머스 시장 확장과 버추얼 쇼룸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이를 소재 부문에도 적용하고 있다. 최근 DTP를 베이스로 소량 다품종 소재를 제작할 수 있는 PoD 플랫폼 ‘해래(www.haeraetextile.com)’를 인수했다. 온라인플랫폼 ‘해래’는 해외 거래가 전체의 80% 이상으로 글로벌 페어 참가 등 해외 B2B 확장을 목표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다이텍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소재 버추얼 쇼룸 구축 작업을 하고 있다. 고객들의 쇼핑 편의와 리얼 쇼핑의 경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버추얼 쇼룸은 다양한 그래픽 작업을 버추얼로 작업한 뒤 실물을 제작할 수 있기에 이 역시 친환경 솔루션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서 대표는 “의류 제품 샘플 제작 시 버추얼 샘플 제작으로 시간, 비용 절감 및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진 것처럼, 프린팅 소재 샘플도 버추얼 샘플 제작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소재 버추얼 쇼룸을 이커머스와 결합한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바이어들과도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HAER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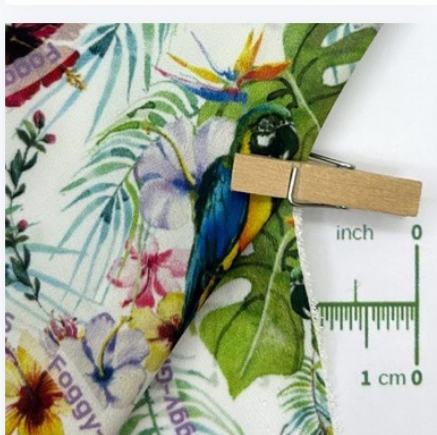
Triacetate-Polyester
SKU: HR-118
19.32 ~ 29.10 USD/YD



Dobby Mini Twill
SKU: HR-120
7.10 ~ 12.50 USD/YD



Seersucker
SKU: HR-121
7.50 ~ 13.25 USD/YD



Foggy-GRS



Light Crepe



Rainy